

세종특별자치시의 풍수지리학적 분석 및 보완방법 고찰*

Geomantic Analysi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Consideration of Supplementation Methods

조 태 운 (Cho, Teun)**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construction of global luxury city' which Sejong city seeks for, by applying a geomantic theory to development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urban planning. To be specific, this study is focused on advancing a geomantic suggestion to be used for urban development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in the future, by verifying existing cities and structures, based on the verification of the geomantic theory. The result of geomantic analysi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showed that it is formed with a gentle surface(面), overall through an encounter between Yongmaek(mountain range, 龍脈) at a long distance(千里) and Geum river, but the entire force of Yong(龍) isn't strong, and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Naesoogoo(internal water entrance, 內水口), although water energy(水勢) is in a good circumstance being surrounded by all the rivers nearby. Based on this study result, this study suggested geomantic supplementation method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first secure the east-west water, or east-west road, when planning rivers and roads. Second, for remedying Naesoogoo, it is needed to switch Naedangsoo of 'Sejoi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into Yeeksoo(逆水) and east-west water. Third, constructing high-rise buildings should be controlled, because the mountains around are not high

주 제 어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도시개발, 풍수지리, 비보풍수

key word :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Sejong City, Urban Development, Geomancy and Geography, Bibo Feng Shui

* 본 논문은 20131012 대전시청 대강당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개발과 도시활성화에 관한 풍수지리학적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풍수지리학전공)박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전통문화학부 강사, art7000@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는 6,25이후 정부주도개발을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여건과 행정체계가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함께 국토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참여정부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당시 ‘월안사수’를 주장했던 박근혜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되어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¹⁾’로 출범하여 안정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에 관한 선행연구조사로 배혜정(2012)²⁾은 공주시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세종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65%가 이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인접지역과 연계발전의 중요성을 논하였으며, 임비호(2013)³⁾는 시스템 생태학의 접근법인 에머지 분석법을 통하여 현재의 계획대로 도시가 형성될 경우 환경용량의 지속성은 힘들 것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는데, 최근 들어 신도시 개발에 있어 환경과 함께 생태학, 생태도시라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생태도시(Eco-city)란 생태학(ecology)과 도시를 의미하는 시(polis)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생태도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원도시, 환경도시, 녹색도시, 친환경도시 등으로 통칭되고 있다.⁴⁾

도시개발이란 어떠한 형태로든 본래의 자연에서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풍수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터를 이용하며 최적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던 옛사람들의 지혜이며 경험철학이다. 또한 동양의 오래된 관념인 천지인사상의 인간과 자연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유기체라고 보았던 관점은 현대적 생태주의 개념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시와 관련된 풍수지리학의 연구로서 김두규(2003)⁵⁾는 행정수도 명당은 진천과 조치원 사이에 있으며 오송과, 특히 오창을 지목하며 행정수도의 입지에 관하여 논하였고, 최원희(2007)⁶⁾는 세종시로 확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중앙행정타운을 건립함에 있어 그때까지 논란이 되었던 주산(主山)문제에 대하여 행정수도와 관련된 논문들의 자료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행정관청의 입지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

세종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연구와 함께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반면에 풍수지리학적 연구는 다소 미흡하여 세종시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입지분석을 논하던 몇 편을 제외하고는 이후에 이렇다하게 연구되었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 1)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이나 약칭 ‘세종시’로 사용하므로 본 논문에서도 이후 ‘세종시’로 표기함
- 2) 배혜정,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인식조사 연구 -충청남도 공주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2012, pp.69~71
- 3) 임비호, “에머지 분석방법에 의한 세종시 환경용량의 지속성 평가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석사논문, 2013, pp.65~71
- 4) 문인곤·천인호, “풍수지리적 입지해석에 관한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0, 제43집, pp.340~341
- 5) 김두규, “행정수도 명당은 진천과 조치원 사이”, 주간동아. 2003, 통권377호, pp.68-69
- 6) 최원희, 「풍수지리문화의 이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풍수지리”, 형지사, 2007, pp.274~293

현재 세종시 도시계획은 서구식 도시구조 개념인 ‘이중환상형 도시구조 개념’을 채택(건설교통부2006,7)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시켜가고 있는데 동양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사람은 집으로 인해서 일어서고 집은 사람으로 인하여 존재한다.”⁸⁾라고 하여 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우리민족 또한 도움을 정하고 도성을 축조함에 있어서 풍수지리 이론을 적용하던 사례를 많은 역사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풍수고전인 「의룡경(疑龍經)」에서도 논하기를 “그 형국(形局)이 크면 도움이 들어서고, 형국이 작으면 개인의 음양택(陰陽宅)이다.”⁹⁾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종시 입지여건에 대한 풍수지리학적 해석을 통하여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및 첫마을 아파트 단지 일대 등을 중심으로 풍수지리 이론에 의한 보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의미하는 ‘세종시’가 공식출범했다.

〈그림 1〉 세종시의 행정구역도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www.sejong.go.kr

II. 세종시의 도시개발

1.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연혁

세종시의 계획과 개발과정은 지역 간의 갈등과 정치적인 문제가 맞물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까지 왔다.

한 때 지지부진하던 세종시의 개발이 2010년 12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일대의 전환기를 맞아 2012년 7월 1일 새

“세종시는 충청남도의 동북단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충북 청원군과 서로는 공주시, 남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으로는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며 1읍 9면 1동으로 되어있다. 세종시의 면적은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등 465km² (도시예정지구 72.91km², <2012년 7월 기준>)로서 서울의 약 3/4정도의 크기이다. 인구는 2013년 8월말 현재 내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117,939명으로 집계되었다.”¹⁰⁾ 또한 행정부처의 이전에 관한 사안으로 “2013년 6월 현재 서울 과천시청사로부터

7) 최원희, 「풍수지리문화의 이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풍수지리”, 형지사, 2007, p298

8) 王微, 「黃帝宅經」, 대만 商務印書館, 1983(민국72) “人因宅而立 宅因人而存”

9) 楊筠松, 「疑龍經」,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形大爲都邑 形小爲陰宅”

10)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

〈표 1〉 단계별 기본방향

발전단계	개발방향	주요기능	목표인구
1단계(~2015)도시정착	행특예산투입중심	중앙행정,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15만명(27만명)
2단계(~2020)도시성숙	민간자본 유치중심	대학,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도시행정	30만명(45만명)
3단계(~2030)도시완성	도시기능 완비	도시정착 및 성숙단계	50만명(80만명)

출처: 장철순, 2012, “세종시 정상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의 이전이 완료 되었으며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총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¹¹⁾

근래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 되면서 인구의 땅 값 또한 전국에서 최고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¹²⁾

또한 초기의 개발기대 심리로 신규아파트 청약과 주택 및 토지매매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³⁾

2. 세종시의 도시계획과 개발현황

세종시 개발계획의 정책적인 목표는 현재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분산’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으로 국토를 분산 개발함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상생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세부 개발계획은 6개의 도시기능을 구분하여 ▷도시행정 ▷국제교류·문화, ▷중앙행 정▷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의 도시기능을 타원 형태로 배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단계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¹⁴⁾

〈그림 2〉 세종시의 행정구역도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www.macc.go.kr)

- 11) 허준영,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효율성 강화방안”, 2013, 통권2012-3 p9
- 12) 국토해양부(<http://epic.kdi.re.kr>) 보도자료 20130225 “지역별 자가 동향(전월대비)수도권(-0.003%), 시지역(0.06%), 군지역(0.08%) 상승 251개 시군구 중 208개 지역이 상승 세종특별자치시(0.66%), 인천 연수구(0.25%) 등 전국평균(0.03%)이상 상승”
- 13) 임상철 외, “세종시 출현이 대전, 청주지역에 미칠 영향 예측에 관한 기초연구” 부동산학보, 2013, 제 53집, pp.294~295
- 14) 장철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세종시 정상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자료집,2012, p12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주변지역을 생활권별 기능배분을 위하여 크게 동·서·남·북 4권역으로 나누어서 계획되었다.

‘동부생활권’ 중부권 내륙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물류유통 기능 수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정주생활권 기능과 주변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서부생활권’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정비하여 정주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편리한 교통접근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문화, 관광기능 강화, ‘남부생활권’ 공주시의 반포면과 연기군의 금남면 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정주생활권 기능 강화. 행정도시의 배후 전원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주거 기능 강화, ‘북부생활권’ 조치원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정비하여 생활권 중심성 강화. 연기리 일대는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주변 농촌 지원 및 관광지원 기능 강화 등으로 구상하여 추진 중이다.

〈그림 3〉 중앙행정기관청사 조감도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부지조성 사업은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2013년 8월말 현재 평균공정이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목표는 2014년 1월 31일이다.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1단계1구역은 2012년 4월에 준공이 되어 총리실과2개 기관이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1단계 2구역도 2012년 11월30일 준공되어 기관들이 이전하여 사용되고 있다. 2단계 1, 2구역은 2013년 11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단계 1, 2구역은 2014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시설’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공원녹지’ ‘정보화시설’ ‘집단 에너지 시설’의 등이 이미 완공 되거나 부지조성의 마무리 단계에서 착공을 하여 진행 중이다.

III. 세종시의 풍수지리학적 분석

1. 세종시의 용세(龍勢)에 관한 고찰

한반도 용맥(龍脈)의 태조(太祖)는 백두산으로 간인용(艮寅龍)과 건해용(乾亥龍)을 반복하며 남하하다가 속리산(1058m)에 이른다. 속리산에서 광대수산과 구룡산으로 이어져 청주의 상당산성을 만들고 대덕리의 좌보산으로 올라가 칠보산(778m)을 일으키며 북으로 올라가 보광산을 응성 뜰을 만든 후 두 맥으로 갈리어 하나는 북상하여 서울 강남터의 조산(祖山)인 관악산을 만들며 한남정맥을 이루고, 다른 하나는 남하하면서 세종시 터를 만들기 위해 서쪽으로 맥을 뺀어 덕성산을 이룬다. 서운산에서 한 맥은 동남쪽으로 뺀어 만뢰산을 일으킨 후 동쪽으로 흘러 진천 뜰과 남쪽에 ‘오창 산업단지’를 만든다.

〈그림 4〉 충남·북 일대의 용의 흐름



출처: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그림 5〉 중앙행정타운 일대의 용의 흐름



출처: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이어서 성거산 흑성산에서 도장리, 대곡리, 영당리로 이어져 도재고개의 국사봉에서 한 맥은 서북쪽으로 광덕산과 봉수산을 만들고 칠갑산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다른 한 맥이 청라리와 도신리 사이의 협(峽)을 이룬 공주 고개를 통과하며 용암리를 돌아서 둔덕골의 국사봉을 넘은 뒤에 원사봉(원수산 254m)과 전월산(260m)에 이른다.

〈그림 6〉 세종시 금강의 수세



출처: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용맥은 속리산에서부터 수 백리를 돌아오는 동안 기복돈질(起伏頓跌)과 개장천심(開帳穿心)을 여러 곳에 이루며 완전히 탈살(脫殺)이 되어 박환(剝換)을 이루었다. 진산(鎭山)으로서 전월산과 원사봉을 배산임수(背山臨水)로 하여 넓은 장남 평야가 대명당으로 펼쳐져 있다. 하지만 주산(主山)인 전월산이나 원수산이 우뚝 서기는 하였으나 잘록하고 특히 청룡이 짧고 약하여 넓은 장남 평야를 감싸 안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2007년 당시 행정관청을 건립함에 있어 주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최원희, 2007)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풍수지리”¹⁵⁾에서 당시 논쟁이 되었던 행정수도와 관련된 논문들을 한곳에 모아 각 논문들이 주장하는 장, 단점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 세종시의 수세(水勢)에 관한 고찰

세종시는 수세(水勢)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미호천과 대전을 거슬러 올라오는 금강이 모여서

15) 최원희, 「풍수지리문화의 이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풍수지리”, 형지사, 2007, pp. 274-294

동출서류(東出西流)한다.

『청오경(靑烏經)』에서 논하기를 “산과 물이 곧바로 내달리는 곳은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고, 물이 동서로 흐르는 곳은 재물과 보물이 모이는 곳이다.”¹⁶⁾고 하였다.

세종시의 수세를 풍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첫째, 「청오경(靑烏經)」에서 논한 것처럼 동서수(東西水)가 세종시를 환포(環抱)해 주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재물이 모일 수 있는 득수위상(得水爲上)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주변의 물들이 모여들어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여 외당수(外堂水)로 흐른다. 금강은 발원지가 전라북도 장수군 신무산(895m)에서 시작되며, 전체 길이는 약 400km에 달하는 우리나라 6대 하천 중의 하나이다. 수 백리를 굽이치며 달려와 미호천과 합류하여 세종시를 감싸며 동출서류하며 공주 쪽으로 빠져나간다. 미호천은 진천뜰에서 발원(發源)하여 청주공항 앞의 석화천, 청주의 무심천, 석남천, 그리고 병천천, 충남북의 경계인 조천천 등이 전부모여 들어 증평의 보강천과 합류한 뒤 금강과 만난다. 즉 중수(衆水)가 모여 들기 때문에 사람과 재물이 모이는 것으로는 충분하다. 셋째, 대명당을 이룬 장남평야를 금강이 외당수로 감싸기는 하나 부족한 점은 장남평야 안의 내당수(內堂水)가 부족하고 순수국이 대부분이며 현재의 호수공원도 내당수이기는 하지만 현공(兪)이론으로 볼 때 8운(2004~2023년)의 간인방(艮寅方)으로 보이는 흉수이다.

3. 세종시의 수구(水口)에 대한 연구

풍수에서의 수구란 내국(內局)의 기운을 한 번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장축(藏畜)해서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변의 산세들로 거둡 관쇄(關鎖)되어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잘 구분이 않되는 것을 길하다고 본다. 반대로 수구가 공광(空曠)하게 넓은 곳은 마치 밀 빠진 독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내기(內氣)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용세를 갖춘 천하의 명당이라도 더 이상 명당으로 존재될 수가 없다.

〈그림 7〉 세종의 외수구(外水口)



출처: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세종시 전체의 수구(水口)는 ‘첫마을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2번과 3번 지역으로 시작되어 서남쪽으로 도남리의 중근봉 자락과 금암리의 장군봉 자락이 서로 교아(交牙)하여 협소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 또한 1번 지역에 건립된 세종보는

16) 靑烏子, 「靑烏經」, 顯堂鐵字本, 奎章閣 藏書, 後漢代., “山走水直 從人寄食 水過西東 財寶無窮”

17) 지운(地運)이 주역(周易)의 낙서구궁(落書九宮)과 같이 20년마다 변화하는 논리로 대만과 싱가포르 등에서 풍수의 중추이론으로 유행되고 있다.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길함을 더해주고, 2번의 나성사(羅星砂) 역시 수구사로 길하게 본다. 아울러 금남교, 학나래교, 한두리대교, 금강교 등 4개의 다리가 수구 쪽에 집중되어 있어 이 또한 다리의 교각 등이 수구를 한층 더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의 해석과 같이 세종시의 입지여건을 풍수지리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수세(水勢)는 주변 지역의 물들이 전부 금강에 모여들지만 내당수(內堂水)가 부족하고 용세(龍勢)가 비교적 약하게 판단된다.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는 “산은 인정(人丁)을 주관하고 물은 재물을 주관한다.”¹⁸⁾고 하였는데, 용세는 인정(人丁) 즉 인물과 정신을 주관하기 때문에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주도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세력이 다소 약해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길지(吉地)라고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청오경(靑鳥經)」¹⁹⁾에서도 논하기를 “하늘이 만든 좋은 터라도 공허한 곳은 막이주고 결함을 보강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보완하는 건축과 시운(時運)을 이용하는 현공풍수의 이론적인 보완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예방하며 오히려 좋은 시기를 이용하여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IV. 세종시의 풍수지리학적 보완 방법

1. 동서수와 동서도로의 우선확보

경전(經典)이란 성현(聖賢)들의 진리(眞理)를 담아 놓은 글이라 하는데 진리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변하지 않는 세상의 참된 이치”를 뜻하며, 풍수는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근본으로 하여 수 천 년간 발달한 경험철학이다. 현존하는 풍수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청오경(靑鳥經)」에서 논하기를 “물이 동서로 흐르는 곳은 재물과 보물이 무궁하다.(水過西東 財寶無窮)”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검증은 필요로 한다. “물이 동서로 통하는 곳은 재물과 보물이 모이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지구는 좌선(左旋)을 하며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연월일시의 길흉이 동서로 빠르고 강하게 들어오는 이치라 볼 수 있고, 동서적 개념과는 다른 남북으로 통하는 물의 주변은 동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이 된다.

이를 두고 일부의 학자들은 “수과서동(水過西東)은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西出東流’를 말하니 이는 서쪽에 높은 산이 있는 중국의 지형에는 맞지만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어 대부분의 물이 ‘東出西流’하는 우리나라의 지형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오류²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8) 서선술 · 서선계 著, 김동규 譯, 「人子須知」, 명문당, 1992.p.822. “山管人丁 水管財物”

19) 靑鳥子, 「靑鳥經」, 顯堂鐵字本, 奎章閣 藏書, 後漢代.“障空補缺, 天造地設”

20) 중국에서 ‘東西’는 [dōngxī]라 하여 ‘동서양’을 뜻하거나 ‘이것’ 등과 같은 지시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동서간의 횡(橫)을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 ‘西東’을 쓴다.

풍수는 오래된 경험철학인데 만약 ‘西出東流’만이 재보(財寶)가 모인다면 서울의 한강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의 광역시들의 물들이 전부 ‘東出西流’인데 대도시로 발전했을 이유가 없다고 보며 조선시대 수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던 안동 또한 ‘東出西流’이다. 따라서 수과서동(水過西東)은 ‘東出西流’든 ‘西出東流’든 간에 물이 횡(橫)으로 흐르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논하는 ‘물과 빈부의 상관관계’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림 8〉 각 국의 수도에 흐르는 물의 분석



출처: 조태운, 2009, 「한양풍수와 수도이전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p 245.
 구글어스 (<http://earth.google.com/>)

동서수와 남북수의 발달관계를 조사해 보면 세계적으로 잘사는 선진국의 수도(룩셈부르크의 룩셈부르크, 미국 워싱턴, 호주 캔버라, 아일랜드 더블린, 영국 런던, 스위스 베른, 일본 도쿄, 오스트리아의 빈, 캐나다의 오타와, 프랑스의 파리)들은 전부 동서로 흐르는 물이 잘 발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반대로 세계 경제순위 100위권 밖의 후진국가들의 수도(잠비아의 루사카, 인도 뉴델리 이집트 카이로,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라오스의 빙찬,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수단 카르툼, 몰도바의 카나시우, 방글라데시 디카)들은 남북으로 흐르는 물이 주변이거나 아니면 물이 감싸지 않고 배반하는 지역이거나 혹은 물이 부족하여 도심을 관통하는 강에 물이 없거나 하는 경우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역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동에서 서쪽으로 굽이치며 내려가는 동서수의 형태를 구비하고 있어 가히 수도로서 부족함이 없고 또한 동서수가 흐르는 청계천과 양재천 주변은 최고의 상업지역에 부유한 지역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남북수가 흐르는 안양천이나 중랑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3년 서울시에서 개발한 청계천 복원 사업 이후로 “현재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서울 시민의 경제적 가치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연형 하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크게 상승하였다.”²¹⁾라는 부분은 지하수를 지상의 동서수로 개발하며 더 많은 양의 물을 흐르게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풍수에서의 수(水)란 내천이나 강물이 있으면 확적하지만 지면도로의

21) 손민수 외, “청계천 친수공간 복원 전후의 응답자 효용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한국지역학회, 2012, 제28권 제2호, p.34

경우도 역시 비가 내리면 노면의 기울기를 따라 양변으로 우수(雨水)가 흐르기 때문에 수(水)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동서도로의 예로 수도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인 종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등은 청계천과 함께 동서, 즉 횡(橫)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남대문시장, 동대문 시장 등의 저자거리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서울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남북 도로인 세종대로, 삼일대로, 남대문로 등은 도로는 넓지만 중간에 일정한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목적지를 향해 내달리는 도로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다.

〈그림 9〉 동서도로에 의한 상권분석



출처: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강남의 동서도로로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등은 번잡한 상권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으나 반면에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남북으로 개발된 도로인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등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강남권 중심부의 도로이지만 주변상권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전광역시의 예로 동서로 통하는 중앙로, 대전역중 통로인 대흥로, 인동사거리와 연계되는 충무로 등은 구도심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인 보문로나 대종로 등은 중촌동에서 산내에 까지 길게 이어지지만 역시 주변상권의 보조역할을 할 뿐 남북도로 자체적으로는 이렇다 할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물 또는 도로를 동서로 통하게 잘 배치함으로써 재물과 보물이 모이는 중심상권 및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형성된다는 풍수논리를 검증해본 바에 의하면 이는 서울과 대전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며 전국의 도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도시가 해당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동서수의 논리는 현대적 신도시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다각적인 재검증을 통하여 새롭게 연구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론이라고 본다.

아울러 앞으로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새롭게 기획되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도심권 안에서의 하천설계 만큼은 반드시 동서(東西)로 통하는 부분의 구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일 정부분 동서남북을 필수적으로 겸해야 하는 도로 설계의 경우는 여건상 우선적인 관공서나 중심상권 등을 동서에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역수국(逆水局)의 조성(造成)

순수(順水)와 역수(逆水)는 풍수의 길흉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법칙으로, 순수란 혈(穴) 앞의 명당수(明堂水) 또는 내당수(內堂水)가 보국(保局)을 바깥에서 감싸며 돌아가는 외당수(外堂水)를 순(順)하게 따라가는 형국을 의미하고, 역수란 내당수(內堂水)가 외당수(外堂水)를 거스르면서 역(逆)으로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림 10〉 순수국과 역수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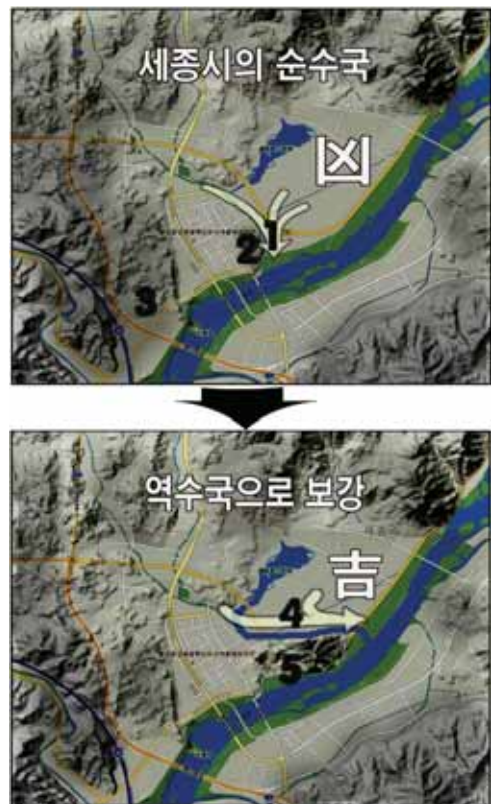
순수국은 내기(內氣)가 순(順)하게 즉, 쉽게 빠져나가는 형태라 가난해지며 사람이 흩어지게 되고, 역수는 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일정부분 지연시키고 막아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재물이 모이고 국 안의 사람들이 번성한다고 본다.

이는 우수(雨水)를 잘 빠져나가게 설계하는 현대적 토목공법과는 배치가 되는 이론인데 풍수지리학에서는 재물이 모이는 척도를 순수와 역수의 관계로 판단한다. 역수(逆水)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한 문헌으로 「흑낭경(黑囊經)」에서는 “지리에서 긴요한 것은 역수이다.”²²⁾라고 했고 『의룡경(疑龍經)』 용들이 혈(穴)을 맺고자 할 때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하는 조건 중의 으뜸이 안산역수(案山逆水)

이며, 다른 말로는 전포(轉抱), 포환(抱環), 횡포(橫抱), 환공(環拱), 호현(湖弦) 등의 다양한 용어로 본문 안에 전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열거되어 있다.

<그림 11>의 1은 현재의 내당수가 나가는 수구인데 순수이기 때문에 풍수적 보완이 필요하다. 2번은 미약하지만 현재의 세종시 수구 옆에서 내수구사 역할을 하는 야산인데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않된다. 3번은 외수구에 해당되는데 개발을 하면서 수구사가 많이 훼손되었으나 이후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빠져나가는 내기를 막아주는 역할이 되어 오히려 훼손되었던 구역의 상당부분이 복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 순수국을 역수국으로 보완



출처: 구글맵스 (<http://maps.google.co.kr/>)

22) 範越鳳, 「黑囊經」, 中國原典, 清代. “地理要逆”

<그림 11>의 4, 5는 현재의 내수구사를 보강하며 세종시 내당수의 순수국을 역수국으로 보완하는 방법이다. 5와 같이 높고 길게 성토하여 수구의 물길을 4와 같이 서출동류(西出東流)로 바꾼다면 역수국을 갖춘 충분한 내수구사가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앞에서 논한 동서수나 동서도로와도 관계되므로 만약 서둘러 보완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되고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것에 풍수적 길기(吉氣)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장구(長久)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3. 주변의 여건을 고려한 고도제한

풍수란 장풍득수(藏風得水)²³⁾의 줄인 말로 본래의 목적은 “묘(墓)를 쓰거나 건축을 할 때의 생기(生氣)를 타기 위함”²⁴⁾이다.

그런데 세종시는 주산을 비롯한 도시의 외곽을 둘러싸는 나성(羅城)의 역할을 하는 산세가 높지 않아 장풍(藏風) 즉 바람에 감추어지는 부분에서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물을 너무 높게 지으면 주변바람의 살기(殺氣) 즉, 풍살(風殺)을 받게 되어 기운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사람이 모이질 않는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도시 안에 속속 건립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들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초고층 건축물들이 건립되는 이유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공사와 입주자의 브랜드가치상승, 관광산업 등으로 인간 경제적인

효과”²⁵⁾등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들은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에 취약하고 또한 그 역사가 길지 않아 이로 인한 또 다른 폐해 등이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12> 장풍에 취약한 초고층빌딩의 유형



출처: '센텀 그린타워'(<http://blog.daum.net/drosa91>)

그러한 가운데 대전 신탄진과 청주 등의 지방도시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초고층 아파트들이 미분양 되어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현안이 되었는데, 그 미분양의 원인을 풍수적 견해로 본다면 취기(聚氣), 즉 기운이 모이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건물이 높더라도 “콘크리트나 유리창으로 막으면 바람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방풍(防風)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풍수적인 관점은 “바람은 생기(生氣)를 흩어지게 하고”²⁶⁾ 만물을 휘멸시키기 때문에 방풍(防風)의 개념을 넘어서 산으로 겹겹이 에워쌓아주는 듯한 장풍(藏風)이 구성되는 것을 길(吉)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앞으로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상징적인 건물을 제외하고 주거시설 등을

23) 郭璞, 「錦囊經」, 新文豊出版公司印行, 1987. “藏風得水, 바람을 감추고 물을 정당하게 얻는다.”는 뜻으로 생기(生氣)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람으로부터 감추어져야 한다.

24) 郭璞, 「錦囊經」, 新文豊出版公司印行, 1987. “葬者乘生氣也”

25) 나원경, “비정형 초고층건물의 형태적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2 p.11

26) 郭璞, 「錦囊經」, 新文豊出版公司印行, 1987. “氣乘風散”

너무 높게 세우는 것 등은 자제되어야 하며 주변의 산세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신규건축물들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고도제한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안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다.

V. 결론

본 논문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세종시의 입지여건을 해석하고 현대 도시의 풍수사례를 분석 개발하여 향후 세종시의 도시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풍수지리학적 보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종시에 대한 풍수지리학적 해석의 결과로, 첫째, 세종시의 용세(龍勢)는 천리(千里)를 달려와 물의 경계에 이르러 개면(開面)을 이루지만 전체적인 용세가 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수세(水勢)는 금강과 미호천 및 인근의 하천들이 모여들어 세종시를 감싸는 길(吉)한 외당수(外堂水)의 형국(形局)이지만 필수조건인 내당수(內堂水)가 부족한 점을 논하였다. 셋째, 외수구(外水口)는 장군산과 중근산이 양쪽에서 대치하듯 주밀(稠密)하여 내기(內氣)를 장축(藏畜)시키고, 세종보와 많은 다리들이 수구 쪽에 몰려있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명당수(明堂水)를 지키는 내수구사(內水口砂)가 약한 부분이 단점이었다.

세종시의 풍수지리학적 해석에 따른 보완방법으로 첫째, 『청오경(靑烏經)』에서 논한 동서수(東西水)의 장점을 밝혀냄으로서 앞으로의 세종

시를 비롯한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하천 및 도로의 계획과 설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현재 세종시의 명당수(明堂水)가 남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내수구사(內水口砂)를 동서로 길게 보강하여 내당수를 역수(逆水) 및 동서수로 전환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는 하천의 흐름을 바꾸는 개념을 넘어서 장차 장남평야의 개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의 세종시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변 산세가 높지 않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의 건립을 자제하는 일정 수준의 고도제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세종시의 개발에 적용되고 있는 서구식 도시구조인 ‘이중환상형 도시구조’²⁷⁾의 분산개념은 풍수지리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가 모이는 취기(聚氣)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2030년 까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나려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다양한 개발이론들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채택 실현되고 있는 ‘이중환상형 도시구조’의 개발계획을 수정 또는 완화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내재적인 풍수환경의 요인이 각 도시의 삶의 질을 포함한 많은 여건을 보다 낫아지게 할 수 있다는 풍수지리학적 관점을 비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는 극단적 환경결정론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학문 간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오류이다. 또한 풍수지리학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27) 최원희, 「풍수지리문화의 이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풍수지리”, 형지사, 2007, p298 “과거 집중형으로 개발된 신도시 사례와는 달리 도시기능이 상당부분 분산되어 민주적이고 균형있는 도시형성이 가능하며, 혁신, 분권, 분산, 균형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는 분권화 시대의 상정을 담아낼 수 있는 신개념의 도시구조”

못한 가운데 다수의 인식전환이 어려운 현실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풍수지리학의 연구와 활용에 한계성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문 간의 상이한 견해 차이는 학자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선적 과제라고 본다.

논문접수일 : 2013년 10월 21일

논문심사일 : 2013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1월 23일

참고문헌

1. 김두규, “행정수도 명당은 진천과 조치원 사이”, 주간동아, 2003, 통권377호
2. 나원경, “비정형 초고층건물의 형태적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 노영학·김중호,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동산학보」 제50집, 한국부동산학회, 2012, pp. 109
4. 문인곤·천인호, “풍수지리적 입지해석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43집, 한국부동산학회, 2010, pp.340~341
5. 배혜정,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인식조사 연구 -충청남도 공주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 서선술·서선계 著, 김동규 譯, 「人子須知」, 명문당, 1992
7. 손민수·조우영·김홍석, “청계천 친수공간 복원 전후의 응답자 효용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지역학회, 2012, pp. 34
8. 임비호, “에머지 분석방법에 의한 세종시 환경용량의 지속성 평가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9. 김상철·임도균·최태은·윤준선, “세종시 출현이 대전, 청주지역에 미칠 영향 예측에 관한 기초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 53집, pp.294~295
10. 허준영,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효율성 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3
11. 장철순, 「세종시 정상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자료집」, 민주통합당 국

- 회의원 박수현 주취, 박수현의원실, 2012
12. 조태운, “한양풍수와 수도이전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3. 최원희, 「풍수지리문화의 이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풍수지리” 형지사, 2007
 14.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통계 20130225
<http://epic.kdi.re.kr>
 15. 구글맵스, <http://maps.google.co.kr>
 16. 구글어스, <http://earth.google.com>
 17.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18. 다음블로그 ‘센텀그린타워’<http://blog.daum.net/drosa91>
 19. 브이월드맵, <http://www.vworld.kr>
 20. BrainTV,
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4774508&lu=v_sen...
 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22. 세종특별자치시청, www.sejong.go.kr
 23. 세종씨티닷컴, <http://cafe.naver.com/lsejongcity>
 24. 郭璞, 「錦囊經」, 新文豐出版公司印行, 1987
 25. 楊筠松, 「疑龍經」,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26. 楊筠松, 「都天寶照經」,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27. 範越鳳, 「黑囊經」, 中國原典, 青代
 28. 王微, 「黃帝宅經」, 대만 商務印書館, 1983(민국72)
 29. 靑烏子, 「靑烏經」, 顯堂鐵字本, 奎章閣 藏書, 後漢代.